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2014년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염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세번째 법회인 제28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 입재
 9월 13일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한주



• 회향
 12월 21일
 지현스님 순천 송광사 울원장

- ♦ 일시 : 2014년 9월 13일 ~ 12월 21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 장소 : 법왕사 4층 대적광전

법사명단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1일차	9월 13일 田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9일차	9월 21일 回	노휴스님	전 조계종 포교국장
2일차	9월 14일 回	도암스님	순천 송광사 강주	10일차	9월 22일 圓	진오스님	울산 월봉사 주지
3일차	9월 15일 圓	법선스님	양산 통도사 옥련암	11일차	9월 23일 凶	해광스님	대전 법화사 주지
4일차	9월 16일 罔	금담스님	진주 극락선원 주지	12일차	9월 24일 罔		초하루 법문
5일차	9월 17일 罔	영산스님	진주 해룡사 주지	13일차	9월 25일 困	지장스님	초의차명상선원장
6일차	9월 18일 困	성범스님	대전 구봉선원장	14일차	9월 26일 罽	원공당 정무 대종사	추모다례재
7일차	9월 19일 罽	성담스님	금산 효심사 주지	15일차	9월 27일 田	원일스님	대구 진명사
8일차	9월 20일 田	홍산스님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16일차	9월 28일 回	각현스님	연꽃마을대표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9 | Vol. 244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같은 마음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기도의 발원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공덕 나누며 지혜와 용기와 원만성취를 함께 하겠나이다. 촛불을 켜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의식적인 행동의 중요함보다는 두 손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공덕으로 벗겨지고 씻겨진 참 모습을 원하오니 태우시고 씻기시어 육신이 거하는 또 다른 내가 지워지고 벗겨져 멀하게 하여 주옵소서.

향하사 모래알 같은 중생들이 팔만사천 부처님 법문 속에 몸과 정신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제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방을 통해 안정된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돕게 하소서. 자비의 손길과 빛으로 그 마음을 쫓아내고 지극한 법향으로 지난 과오의 업을 지워 주소서. 신심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신 모든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공이 들게 하시고 수행하는 행로 행로마다 부처님 함께 하시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답게 본이 되는 방정한 자세 갖추게 하시고 진정한 빛과 법향을 풍기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기, 백고좌 법회도량 법왕사 불자님들이 천일기도의 넘을 세웠습니다. 기도동참 불자님들의 심중 소구 소원이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원만성취될 수 있기를 합장발원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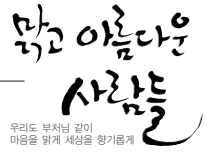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분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도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초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서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C.o.n.t.e.n.t.s



Vol. 244호



- 04 깨침의 향기
깨달음의 근원은 마음자리 밝히는 것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8 비술산방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는 보시 · 실상 주지스님
- 10 불교상징의 세계
스님의 영원한 안식처, 승탑(1) · 조명래
- 14 특집 | 입시기도 발원문
힘찬 깃발 펄럭이도록 지혜의 광명 주십시오
- 16 법왕사 신도광장
법왕사와의 인연은 부처님의 뜻 · 승혜스님
- 20 명찰순례
자연미가 물씬 풍기는 안성 서운산 청룡사
- 24 법왕사소식
- 27 법왕사게시판
- 29 해오름소식
- 30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8(서기 2014)년 9월 01일 발행 | 통권 244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윤, 승혜, 자행, 강선옥, 반아화 | 기획 · 제작 · 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근원은 마음자리 밝히는 것

원공당 정무 대종사



분수에 넘치는 욕망으로
행동하면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반면 순일한 마음으로
살면, 자기 자신과
이 세상도 소원하는 바의
좋은 인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그 사물의 고요한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그것은 슬프거나 근심 가득한 마음으로 꽃을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름답지 않는 반면, 기쁜 마음으로 꽃을 보면 꽃은 곧 기쁨이요 즐거움 그 자체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자리라고 합니다. 마음 자리는 모든 인연의 근원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인해 자신과 모든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분수에 넘치는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언젠가는 그 과욕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되돌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극하고 순일한 소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소원하는 바의 좋은 인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쌀 한 톨이라도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능이나 욕망으로 말미암아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스레 짜증을 내고 누군가를 원망하곤 합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은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피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짜증과 원망과 분노로 덮여있는 마음을 살피는 것에서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짜증을 내지 말아야지' 또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고 억지 생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짜증이 났으면 나는 대로, 원망을 하면 하는 대로

내가 아닌 제3자가 되어 내 마음이 하는 바를 그저 보고 듣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짜증이나 원망, 분노도, 기쁨과 슬픔도,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조차도 그저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피라는 것입니다.

참선에서 강조하는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살피는 일이 곧 ‘행주좌와 어묵동정’인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것처럼 매사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야말로 수행의 기본이며 근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하는 것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질투심과 시기심,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아상(我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욕망이 모두 성취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질투심과

시기심, 그리고 아상 또한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하루인들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고,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고 생각되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여깁니다. 설사 삼천대천세계를 금은보화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욕망은 다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를 얻고 나면, 또 다른 하나를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수행이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살피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밤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집 한 칸과 하루 세끼 밥을 거르지 않는다면 충분합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욕망의 불길이 일어나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눈



촉촉하게 이영을 덮은
지붕에는 아무리 큰비가
내려도 새지 않듯이,
진실한 마음에는 세상의
번뇌가 가득한 욕망의
불길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으로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의 불길이 일어나고, 귀로 아부하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우쭐되는 마음이 일어나며, 코로 좋은 냄새를 맡으면 갖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고, 혀로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되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고, 몸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기를 소망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쉽게 얻어지지 않지만 이와 같이 행하면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어떠한 욕망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듯이 담담하게 살필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는 욕망의 불길의 근원을 살피고 또 살펴보십시오. 촉촉하게 이영을 덮은 지붕에는 아무리 큰비가 내려도 새지 않듯이, 진실한 마음에는 세상의 번뇌가 가득한 욕망의 불길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보관일체중생(普觀一切衆生)하니 구유여래지혜덕상(具有如來智慧德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 모두가 여래의 지혜와 부처님의 덕상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욕망의 불꽃, 번뇌의 불꽃에 기름을 들이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모든 깨달음의 근원인 본래 마음자리를 살피는데 전심전력하도록 합시다.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는 보시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는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견디기 힘든 환란을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보자면,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곳곳에서 답지한 성금과 구호품, 자원봉사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하늘이 무너진 절망 한 가운데 있던 유가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었습니다. 잠수사들은 생계를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와 목숨을 내걸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고, 수백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참혹한 사고의 현장에서 부처

자연의 이법(理法)은 한 치의 어김도 없어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우주의 도도한 순환은 인간의 세세한 작위에 걸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갈 뿐입니다.

올해 우리는 참으로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비롯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군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는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진정 문명사회에 살고 있



님의 화신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그 극복과정을 보면서 우리 불자들은 어떤 재난의 현장에서도 앞장서고 더욱 발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보살심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어디에도 ‘나’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실체적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은 곧 ‘나’ 라는 역설적인 명제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이 한몸(同體)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불교의 존재론, 우주론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주 안의 모든 존재는 겉으로 보기에 마치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루살이 한 마리, 허공에 날아다니는 티끌 하나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치를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 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 는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즉 모든 존재는 인드라의 그물망처럼 하나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재물을 보시하고, 몸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도 다 알고 보면 곧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보시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비심(大悲心)은 바로 동체적 조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베푸는 자비가 이 동체적 대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시혜자와 수혜자를 가르게 되고 이때 시혜자는 동정심을, 수혜자는 모멸감을 얻게 되어 진정한 보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바깥에서 뛰어놀다 다쳐서 들어온 아이의 상처를 보살피면서 ‘내가 자식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는 ‘상(相)’ 을 갖는다면 그게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몸을 다친 것보다 더 큰 아픔으로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동체대비의 자비심입니다.

동체적 보시에 대해 《금강경(金剛經)》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라고 말합니다. 즉,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는 보시’ 라는 뜻입니다. 준다는 마음도, 받는다는 마음도 없이 우리가 하나라는 동체적 발로에서 나오는 보시만이 나와 이웃을 함께 성불의 길로 이끌고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보원사지 국사보승탑

스님의 영원한 안식처, 승탑(1)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승탑(僧塔)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불탑(佛塔)보다 먼저 조성되었다.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리불, 목건련 등 제자들의 묘탑(廟塔)으로 처음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승탑’ 보

다는 ‘부도(浮屠)’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도는 ‘붓다(Buddha)’의 음역으로, 원래는 ‘부처님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은 고승을 부처님과 동일

시하고 존경하면서 ‘부도’라 일컬었으며, 자연스레 고승의 묘탑이 불탑과 대등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승탑의 조성

불교에서는 불·법·승의 삼보를 숭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보(佛寶)는 탑과 불상을 조성하여 공경하고, 법보(法寶)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佛經)을 많이 만들어 널리 배포하고, 승보(僧寶)는 스님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 하는 전법자(傳法者)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승탑이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삼국유사에 ‘신라의 고승 원효는 죽은 후 유골로 초상이 만들어져 분황사에 안치되었고, 자장의 유허는 석혈(石穴)에 봉안되었으며, 통일신라 시대의 진표율사는 죽은 후 제자들이 흩어지려는 유골을 모아 흙 속에 매장하였다고 한 기록을 통해 지금 우리가 고승으로 추앙하고 있는 원효, 자장, 진표율사 등의 유골이 승탑에 봉안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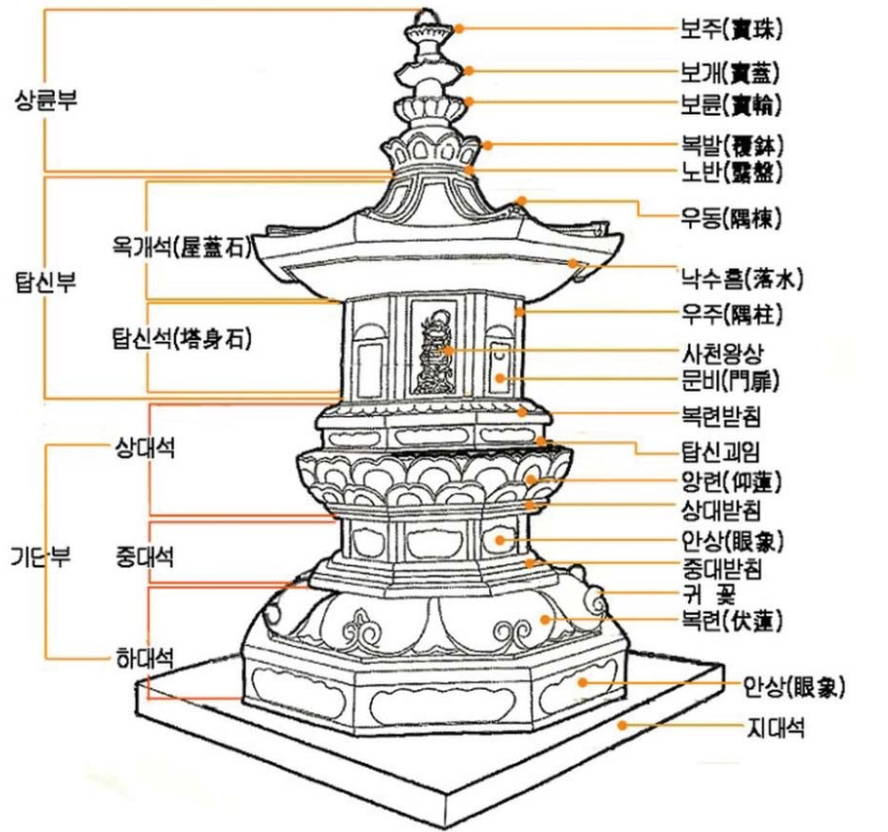
또한 삼국유사에는 ‘신라 원광법사의 부도가 금곡사에 있고, 혜숙스님의 부도가 안강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며, 백제의

승려 혜현의 유골은 후에 석탑을 만들어 그 속에 안장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 시대 말기인 7세기경부터 승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구마라습(344~413)은 인도의 승려로 중국에 들어와 서명각과 소요원 등에 머물면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아미타경(阿彌陀經)·중론(中論) 등 많은 경전을 번역하여 경률 74부 380여 권을 펴냈으며, 69세에 입적하였다. 동진(東晉) 말기에 건립된 초당시는 소요원의 일부로서 구마라습의 사리탑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사리탑은 높이가 2.23m, 12층으로 조성되어 있다.

7세기 초에 서유기의 주인공인 현장법사는 구마라습의 구역불교(舊譯佛敎)에서 벗어난 신역불교(新譯佛敎)를 일으켜 대승불교를 한 차원 끌어올렸으며, 이때 규기와 원측은 현장법사를 좌우에서 보위하면서 각각 많은 번역과 저술을 남겼다. 규기는 법상종의 개창자가 되었고, 신라 진골 출신의 왕족인 원측(613~696)은 중국 유식학의 대가로서 서명학파를 이끌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696년에 중국에서 입적하였다. 그 뒤 서안의 흥교사에 있는 현장법사 사리탑 좌우에 나란히 봉안되었다.

구마라습과 현장법사의 사리탑, 그리고



승탑(부도)의 명칭

신라 진골 출신의 왕족인 원측법사 등의 사리탑과 장례법은 우리나라에 전해져 승탑 조성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승탑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宗祖)로 추앙받고 있는 도의국사

가 784년 당나라에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서당 지장선사로부터 선법과 함께 도의라는 법호를 받아 신라 41대 헌덕왕 13년(821년)에 귀국하여 설악산 진전사에서 선의 이치를 설한 이후 구산선문(九山禪門)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9세기경이다.

선종불교는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인



대흥사 부도군

정반은 종풍(宗風)으로 인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매우 중시되었다. 따라서 선법을 널리 선양한 스승이 입적하면 제자들은 스승의 종풍을 후세에 널리 전하고 산문의 전통을 굳게 다지기 위해 존경의 표시로서 승탑과 탑비 건립에 당대의 예술적 기량을 총동원하였다.

당시에 석탑과 석등, 불상 등을 만들었던 빼어난 석조기술은 승탑과 탑비의 조성에 그 솜씨를 발휘하여 새로운 예술적 영역과 전통을 확립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승탑의 조성 장소

승탑과 불탑은 사리를 봉안한다는 점에는 같지만 그 형태와 조성 장소에 있어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사찰 중앙에 있는 불탑의 주변에 승탑을 배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불탑보다 불상을 모신 금당을 중심으로 사찰의 전각을 배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승탑은 일주문을 들어선 사찰의 입구나 경내에서 한적한 곳에 배치하여 승탑밭 또는 승탑전이라 부른다.

힘찬 깃발 펴려이도록 지혜의 광명 주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5학년도 대입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100일 관음기도를 8월 5일 입재하여 수능일인 11월 13일에 회향합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들은 영험 있는 기도도량인 법왕사에서 100일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면서 입시기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이 진언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온갖 환란이 이 사람에게는 침범하지 못하며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성취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중생의 원력과 함께하시는 관세음보살님
중생의 온갖 서원으로 하여 지혜 더욱 깊으시고 자비 더욱 한량없으신 관세음보살님
발원제자 △△생 ○○○ 등은 다행히도 관세음보살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복덕의 품에 들었습니다.
수승하신 원력과 미묘하신 상호로서 고액 속의 모든 중생 하염없는 일천의 손으로 거두시며 하염없는 일천의 눈으로서 광명 나투시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웁니다.
설함이 없으신 말씀 가운데서 비밀의 법문 다 설하시고, 들으심 없으신 그 가운데서 온갖 중생의 소리를 들어 거두시는 관세음보살님
여기 조출한 몸과 마음으로 보살의 원력 가운데 들고자 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참으로 높고 미묘하여 백천겁을 다하도록 아득히 만나뵙기 어려운 부처님 법문 가운데 이르고자 하는 저희들, 이제 모든 죄업과 허물 다 벗어나 참으로 맑고 맑은 몸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소서.
하늘과 모든 성중 또한 함께 보살피시어 백천가지 온갖삼매 일시에 깨우치며 받아 지닌 저희 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며 받아 지닌 저희 마음 신비로운 처소이니 세상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괴로움의 바다 건너 다시 이승의 방편문을 두루 통달하게 하여지이다.
여기 그윽한 묘법의 향기 속에 휩싸인 동참대중들은 이제 어제의 그 몸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방편이심을 압니다.
이제 저희들은 오묘한 몸과 마음 다 기우려 보살의 원력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결코 티끌 같은

생명 하나도 외면함이 없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될 것입니다.
중생의 희망과 구원의 빛이신 관세음보살님
오늘 여기 청정한 도량 법왕사에서 발원제자 △△생 ○○○ 등은 지성 발원하나이다.
오늘 저희들의 서원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력과 함께하고자 함이며 저희들의 간절한 발원은 저희 아이들의 발원이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들의 더욱 뜨거운 사랑의 처소이며 힘차게 펴려이는 깃발이며 세세생생 함께 가야 할 희망의 길입니다.
지난 겨울의 밤은 오히려 짧았고, 봄은 차마 두려웠으며 여름은 번개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의 눈은 더욱 깊은 푸르름으로 빛나고 저 높은 산봉우리에서 하늘 저 멀리로 비상할 시간입니다.
중생의 사랑이신 관세음보살님
중생의 고통이신 관세음보살님
중생의 희망이신 관세음보살님
이제 저희 아이들은 저 광명 높은 무구정광 대다라니 힘찬 깃발로 펴려일 것입니다.
지혜광명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님
저희와 저희 아이들에게 힘찬 용기를 주소서.
무한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영원하기를 맹세한 저희들은 이제 오히려 아무런 바람이 없습니다.
보살의 서원 가운데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자 하는 저희들은 오로지 다함없는 불법승과 계정혜와 보리심을 이루고자 함이요, 오로지 삼악도와 탐진치와 중생심을 여의고자 하나이다.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모든 중생의 복덕의 집이며 공덕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님
발원제자 △△생 ○○○ 등의 100일, 기한한 조출한 발원은 제불 보살님의 자비공덕과 더불어 한량없나이다.
이제 물러나 원하옵나니, 오는 날 오는 세상에서는 결코 시험하는 일이나 시험받는 고통은 영영 사라지도록 할 것이며, 그리하여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이 평등과 평화의 나라에 들어 길이 깨달음의 기쁨 가운데 영원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법왕사 일꾼 최태회 거사님 법왕사와의 인연은 부처님의 뜻

승혜스님 / 법왕사



편지를 씁니다. 신도님, 출가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할 바에야 차라리 속퇴하라는 충고가 강도를 높일 무렵이었지요. 산골 토굴에서 공부하던 때를 돌이켰습니다. 계칙과 규율에서 배움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르신 부처님 설법, 맞지 마 니카야 제3권 제5 수낙타타 경의 구절에 빨간색 밑줄을 긋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 당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했던 장로 밧디아는 언제나 “아, 즐겁다”를 외쳤습니다. 주위 벗들이 부처님께 아뢰어서 즐거운 이유를 물으시는 부처님께 예전의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왕으로서 살 때는 왕실 내부에서나 사대문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치다꺼리하느라 한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가하여 부처님의 법으로 내면을 살펴보는 일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세상의 발생과 소멸을 꿰뚫어서 세상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았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출가를 하겠다고 결심한 소나 (Sona Kutikanna)에게 마하 캣차야나 (가전연)존자께서 되묻습니다. 하루 한 끼 음식과 한 벌 승복으로 수행하는 이 생활을 견디겠냐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날개 두 개만 짐

으로 갖고 날듯이 출가자는 몸을 가릴만한 승복과 배를 채울만한 발우로 만족하라고 부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 부처님께 출가를 결심한다면 다음과 같이 결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가생활은 방해가 많아 먼지가 자욱한 길이다. 출가생활은 공기처럼 자유롭다. 재가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충족되고 오로지 순결하게 깎아놓은 진주처럼 빛나는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구나. 나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가사를 걸치고 출가해야겠다.>

법왕사 신도, 최태회 거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고기 먹는 일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절에서 도량석을 하는 새벽시간에 저절로 잠이 깨며 경전 구절이 자연스럽게 외워졌다는, 마치 스님과 같은 버릇을 가진 거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법왕사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새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지 않는 바람에 전생에 스님 아니었느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상하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린내가 싫더군요. 술을 즐기는 탓에 해장으로 명태국은 먹습니다. 채소만 먹어도 거뜰하더군요. 제 나이가 곧 80이지만 건강하게 일을 하잖아요. 승혜스님 지적처럼 내가 전생에 스님이

있던지 경전 구절을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기억이 되더군요. 법왕사 법회에 함께 암송하는 천수경, 화엄경 약찬게, 이산혜연 선사 발원문, 범성계를 다 외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불경을 읽고 절에 오거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때 혹시 빼버리고 못하는 날에는 어쩐지 기분이 안 좋더군요.

1993년쯤에 법왕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진해에서 비료공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이었는데 막내딸이 경북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하숙을 시키느니 차라리 대구에 같이 살러가자는 마음으로 따라왔습니다. 막내딸은 일본에서 대학원과정을 마쳤는데도 독일과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지금은 식품회사 연구실 팀장으로 근무합니다. 아내가 신심이 깊은 불자입니다. 대구에 와서야 아내의 권유로 절에 가기로 했는데 집 근처 불교용품가게에서 법왕사를 소개하더군요.

당시에 법왕사는 천막법당 다음으로 방사가 두 군데 정도 생겼을 즈음입니다. 그때는 마당에 아미타부처님 입상만 보였지요. 가까이 와서도 물어 찾았을 정도로 한적한 분위기였지만 첫 걸음에 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해인사 혹은 경주에 위치한 절에 친지들과 나들이 삼아서 다녀왔던 때와 기분이 달랐습니다. 아내도 함께 법왕

사에 다닙니다. 요즘 다리가 아픈지 지난 백중행사에 살짝 다녀갔습니다.

법왕사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승혜스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볼까요?

봄에는 지난해에 사용했던 연등 틀이 상하지 않게 연잎을 잘 찢어내는 일부터 시작하여 연등을 만들어 초파일을 맞지요. 메주 쪼기를 돕는데 청도에서 콩을 사서 삶을 때 불을 때고 메주 틀에 메주를 만들고 곰팡이를 씻어냅니다. 간장 담그기와 김장도 돕습니다. 관음재일에는 불기를 닦고 후원 일이 불편하지 않게 제때에 칼을 갈아줍니다. 천도재 등 행사를 마치고나서 촛불을 끄고 마무리 청소를 해요. 그리고 법왕사 사보를 전국에 발송하는데 한 권씩 봉투에 넣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보니까 하는 일이 제법 되네요. 제 나름으로 정성을 쏟는 것은 건강한 몸 덕분이지만 아마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과 무슨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태희 거사님을 인터뷰한 날은 마침 지장재일입니다. 인터뷰 도중에 거사님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도착할 시간인데 어디냐고 묻는 전화 같았습니다. 아직 절에 머무니까 당신이 먼저 거길 다녀오라고 안부를 전하시는 모습에서 거사님 부부의 금슬이 좋아 보입니다.)

법왕사 사부대중이 화합하여 인사를 주고받고 주지스님과 더불어서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하게끔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 열심히 법왕사 일을 도우겠습니다. 사찰에 나들이 가듯이 구경만 다녔고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도 하지 않던 제가 법왕사에

서 부처님 인연을 만났나 봅니다. 아내와 막내딸과 함께 원불을 봉안했고 법왕사 제2 해오름요양원 불사에 동참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인연 귀하게 성숙되길 바랍니다.

출가 후에 정진하여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를 체득한다. '괴로운 삶은 다했고 청정한 수행은 완성되었으며 무거운 짐을 벗어던졌고 새로운 탄생은 결코 없다.'고 스스로 잘 알게 된다.

그러면 왜 출가하는가?

세상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은신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의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부족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갈애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맛지마 니카야 국왕 경에서〉

- 불교대학 주·야간 경전반 철야정진 문화강좌 -

구분	요일	시간	강의 내용	법사
기초반	금요일	오전 10시	예불, 천수경, 반야심경 강의	주지스님
중급반	수요일	오전 10시	초기 원형 불교	영일스님
사경반	목요일	오후 2시	법화경, 금강경, 지장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모든 신도
철야정진		저녁 9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 9시 입재, 새벽 4시 회향	모든 신도
문화강좌			월요일 : 다도, 꽃꽂이 수요일 : 합창 목요일 : 서각, 사물놀이	모든 신도

자연미가 물씬 풍기는 안성 서운산 청룡사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서운산은 해발 547m로 아담하고 바위도 거의 없는 유순한 산세를 자랑한다. 그런 서운산에 포근히 안겨 있는 청룡사. 창건 당시의 이름은 대장암이었지만 나옹선사가 상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청룡을 보고 절 이름을 청룡사라 이름 한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자의 말사인 청룡사(靑龍寺)는 고려 원종 6년(1265) 명본국사가 창건한 절도 창건 당시에는 대장암(大藏庵)이라 하였다. 그후 공민왕 13년(1394) 나옹선사가 이 절을 크게 중창하고 청룡사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한 때 청룡사에는 고려 공양왕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세종의 명에 의해, 1437년 공양왕의 초상화가 고양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후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의 초상화를 이곳에 모시면서 왕실의 태평을 비는 원찰로 삼았었다고 한다.

청룡사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남사당패의 근거지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청룡사에서 겨울을 지낸 뒤 봄부터 가을까지 청룡사에서 준 신표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회를 팔며 생활하다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청룡사로 되돌아와 겨울을 보냈다고 한다. 우두머리인 바우덕이 이끄는 남사당패는 전국인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청룡사 입구에는 커다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바로 '청룡사 사적비(靑龍寺事蹟碑)'이다. 1985년 6월 28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4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인 1720년에 청룡사 중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절 진입로에 세운 사적비이다. 높이 1.9m, 가로 0.73m, 세로 0.31m이다. 비는 큰 돌 하나로 조성되었는데 돌에는 용 비늘이 조각되어 있다. 청룡사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일주문 대신에 사천왕문이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천왕문에 사천왕상이 없다는 것이다.

고색창연한 대웅전은 자연미가 물씬 풍긴다. 보물 제823호인 대웅전의 중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선조 34년(1601)에 중수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17세기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숙종 46



사천왕문



대웅전



청룡사 사적비



대웅전 기둥

년(1720), 순조 21년(1821), 현종 15년(1849), 철종 14년(1863)에도 중수되었다. 특히 유명한 것은 자연미를 살린 대웅전의 기둥이다. 전면 기둥은 비교적 가지런하지만 양 측면과 후면에 사용된 기둥은 구불구불한 아름드리 나무를 꺾절만 벗긴 채 본래의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있다.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우리나라 건축의 한 특징을 보여 준다. 내부에는 중앙에 불단을 만들어 석가삼존불을 모시고 그 위에 닫집을 달아 장엄했다.

법당 안에는 현종 15년(1674)에 만든 무게 5톤의 청동종이 있다. 보물 제114호이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 후기 종들 가운데

서도 우수한 작품으로 17세기 범종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감로탱화(보물 제1302호)는 중생제도(衆生濟度)와 효사상(孝思想)을 강조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영산회괘불탱화(보물 제1257호)는 조선시대 효종 9년(1658)에 제작된 것으로 본존불이 작아지고 협시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동등해지는 17세기 중엽의 대표작이다. 보물 제1789호인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은 임진왜란 이후 대형 소조 불상의 제작이 유행하기 시작하던 시기의 불상이다.

대웅전 앞에는 삼층석탑이 세워져 있다. 높이 2.38m로 평면 사각형의 기단 위에 3

층 탑신을 올려져 있는 삼층석탑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9호이다.

청룡사에서 2km 정도 더 올라가면 은적암이 있다. 신라시대 때 창건된 은적암(隱寂庵)은 고려 태조 왕건이 3일간 은거하며 기도를 하였다 하여 '은적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하남스님, 나옹선사를 비롯한 여러 큰 스님들께서 참선한 정진도량이다. 은적암 감로수는 겨울이나 여름 할 것 없이 늘 섭씨 10도 정도를 유지하는 지하 암반수로 왕건도 칭찬할 정도로 물맛이 좋으며 치료에도 효험이 좋다고 하니 청룡사에 들리는 길에 한 모금 마셔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안성에는 청룡사뿐만 아니라 석남사, 미리내성지 등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어 역사공부하기에도 좋다.

청룡사 가는 길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북한안IC에서 내려 진천방향으로 7.7km 달리다 보면 도림교차로가 나온다. 도림교차로에서 백곡(진천)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2.8km 이동하다 좌회전, 청룡호수 독방길을 지나 산으로 들어가면 길 끝에 청룡사가 있다.

법왕사 소식

제27회 백고좌법회 회향

지난 5월 13일 입재한 법왕사 제27회 백고좌법회가 불자들의 많은 동참 가운데 지난 8월 20일 혜능스님의 보살계 및 불명수계법회를 끝으로 회향했습니다.

이날 회향 법회에는 200여 불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100일 동안의 법회를 총정리하고 새로운 불심을 다지는 보살계와 불명을 받았습니다.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회향



갑오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음력 7월 보름인 지난 8월 10일 회향하였습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 재일마다 100여 불자들이 기도에 동참하여 마지막 법회를 마치고 그동안 정성들여 베낀 사경과 공양물들을 불사르는 의식을 끝으로 회향하였습니다. 이번 법회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은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중음세계에 떠도는 영가들을 천도하는 크나큰 공덕을 닦았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고득점 기원 100일 관음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2015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100일 관음기도를 지난 8월 5일 입재하

여 수능일인 11월 13일에 회향합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들은 영험 있는 기도도량인 법왕사에서 100일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4층 대적광전 단청공사 완공



복지관 4층 대적광전 단청공사가 최종 완공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는 착공 13년만인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4개월 만에 단청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어 법당 내부 기둥과 벽체에도 각종 불교 교리와 설화에 연관된 회화를 그려 완공한 것으로 우물반자와 여법한 단청이 도량을 장엄하고 있으며 대적광전은 170평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 추진 중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의 단청공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삼신불 봉안 불사를 병행합

법왕사 소식

니다.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 등 삼신불을 봉안하는 이번 불사는 불상의 좌대가 60cm, 높이가 2m10cm에 이르는 큰 불상으로 천장 높이 9m에 이르는 대적광전의 주불로 모시게 됩니다. 한편 이번 불사에서 설판제작에는 100만원 이상, 개인은 10만원 이상의 불사를 모연하고 있으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만불전에서 각종 강의 진행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을 주법당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3층 만불전을 각종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불교대학, 각종 문화강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책상을 미리 배치하여 많은 강의와 강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28회 백고좌법회 입재



연담스님 지현스님

법왕사에서는 올해 계획한 세 차례의 백고좌법회 가운데 마지막회인 제28회 백고좌법회를 오는 9월

13일 입재하여 12월 21일 회향합니다. 첫날 입재법회에는 제주 천제사 한주 연담스님께서 법문하시며 회향법회는 순천 송광사 울원장 지현스님께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집전하십니다. 올해에는 모두 세 차례 백고좌법회를 병행하는데 제26회와 27회 백고좌법회를 회향하고 제28회 법회를 병행합니다. 특히 이번 백고좌법회는 천일기도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갑오년 한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여법하고 정성이 가득한 기도법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회 중간에도 불명 보살계 수지법회, 삼사순례법회, 방생법회를 비롯해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열릴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공당 정무 대중사 3주기 추모다례제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9월 26일 법왕사 회주 원공당 정무 대중사 3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법왕사 회주로서 불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입적하신 큰 스님을 추모하고 유덕을 기릴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마가스님 초청 힐링 콘서트 회향



법왕사에서 칠월칠석인 지난 8월 2일 개최한 '제27회 백고좌법회 회향 기념 칠석날밤 마가스님 초

법왕사 소식

청 힐링콘서트'가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회향하였습니다. 이번 법회를 진행한 마가스님은 명상 전문가로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힐링멘토'로 이번 콘서트에서 결코 밝지만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휴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법문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마가스님 외에도 승려 가수인 보현스님과 상정스님, 우담바라 합창단, 해오름 사물단이 출연하였으며 불교방송 박수경 아나운서가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음악회 개최



법왕사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외무대에서 '찾아오는 음악회'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사랑 봉사단 박성권 단장 외 가수 10여명이 출연하는 음악회는 요양원에서도 매월 1회씩 공연하여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불교서적 및 용품 판매점 개점



법왕사에서는 야외 광장 한켠에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불교서적과 용품을 판매하며 불자들이 차를 마

시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불자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신천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자리에 마련한 이 휴식공간은 법왕사를 찾는 불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 합동차례 봉행

법왕사에서는 올해 추석인 9월 18일 평생위패를 모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석합동차례를 신청, 봉행합니다. 가정에서 차례를 올리기 힘들거나 여법한 절차로 차례를 올리고 싶은 불자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많이 동참하여 불교식 차례절차로 조상의 음덕을 기리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광장에 수석 정원 조성



법왕사에서는 주변에서 수집한 각종 수석으로 복지관 광장에 아담한 수석정원을 조성하여 도량의 분위기를 한층 더 정겹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주변의 불자들이 기증하거나 직접 수집한 수석과 각종 수목 및 화초로 만든 정원은 특히 해오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법왕사 게시판

새로 오신 법우님

이철우	이숙희	김혜식	권재우	하정봉
송지은	김훈	김민중	조만영	서현지
황경연	김진아	정상열	이철사	김재수
정경순	이향림	이정숙	이채원	권순영
권순철	조성자	김미희	김용태	조일훈
박예지	김영호	장진근	김금희	이옥자

이하에진

사보 도움 주신 분

법안스님 400부 유청일 영가 1,000부
김중락 200부 명연스님 300부 최옥남 300부
오진환 200부 요양원 300부

공양 올리신 분

백중 공양 올리신 분

이재욱	최라임	류윤만	임인환	정현표
오진환	하경순	김선우	진종원	이정래
정진행	정경순	김정석	서치경	강추월
심규암	서영덕	김순자	장연지	이원석
이세정	전정광	박진태	김상원	최상호
이종량	김성도	이동학	조복래	구승우
박의창	김옥희	장시덕	조기수	권영돈
최남구	김경환	이재학	정효교	정반야화

정호민 영가 전지민 영가 진은지 영가

과일공양 올리신 분

세광하이테크 이정상(백중 5~막재 과일공양 일체)
류윤만(4재 과일공양 일체)
홍분희 강춘희 김상한 김상원 황현숙
정민우 정돈 박동근 양영갑 김창범 영가

대중공양 올리신 분

하경용 김순태 이태화 제갈욱 차미희
권마하연

떡공양 올리신 분

김영홍 심규암 류윤만 박종환 박상익
이정상 정영미 김상수 이재학 박종성
임복두 양영갑 한정수 이영석 여축동
제갈욱 이기창 정돈 배해동 김상원
권영돈 최남구 장백련화 백대행심

꽃공양 올리신 분

박종근(이화꽃집) 이세정

공양미 올리신 분

심보현(초하루) 제갈선(초하루) 신승일(생일)
금태운(생일) 김종구(생일) 이영호(생일)
정국영(칠석기도) 강소남(칠석기도) 정입분(생일)
장재봉(생일)

떡공양 올리신 분

김분용(초하루, 관음재일) 이정화(초하루)
김근태(천일기도) 이순일(원불점안식)
한성준(생후100일) 조정혜(생일)

대중공양 올리신 분

김영화(초하루 국수) 구실상화(생수)

과일공양 올리신 분

양문갑(초하루) 양영갑(초하루) 정미화(천일기도)
정광춘(기제사축원) 허성빈(수능기도)

꽃공양 올리신 분

최태조 영가 승혜스님 조을연 영가

영가단 물품 보시하신 분

이강복 이영석 박경영 손정열 정승우
김영주 정민우

생필품 보시하신 분

박치민(의류) 양혜영(화장지)

불사 올리신 분

불기 불사하신 분

김영원 박대희 신현수 신명균 정정교
조병재 유인중 유성종 이상훈 양혜영
양혜진 이종량 박대희 이경란 이윤주
유청일 영가 백보현행

법 보시하신 분

정진행 제갈선 유청일영가

삼신불 불사 올리신 분

설판 제갈선 정민경
216 노시근, 서치경, 노왕구, 노진주,
217 안상현 218 유인중, 유영준 219 유성중
220 이수월심 221 황경연 222 조만영
223 최재승 224 홍현덕 225 조인숙
226 권병기 227 서영희

228 이병희, 이진희, 이선희 229 이수일
230 권혜은월 231 윤옥순 232 김금강심, 이은미
233 김근환 234 백철기 235 신용홍

◎ 4층 대적광전 단청 불사 올리신 분

정연국 정한웅 정예은 신현수 허성준
신장희 정진행 김상한 김태영 김우영
금태운 공덕명 장우성 익명 김상한
정진행 권순애 박경훈 박종성 정원철
김인희 이세정 박무착심 누에디턴 승혜스님
오계식 영가 김종봉 영가

◎ 4층 대적광전 상들리에 불사 올리신 분

최재훈 최윤재

◎ 한평불사 하신 분

71 송재호(한평) 72 정봉순(반평)
73 이유정, 이정희, 이유홍, 이유모(한평)
74 경조스님

◎ 승복 보시하신 분

정남규

◎ 원불 봉안하신 분

이상호(관세음보살)	이상호(관세음보살)
이계철 영가(지장보살)	권을필 영가(지장보살)
유청일 영가(지장보살)	권재우(관세음보살)
수공 영가(지장보살)	일경 영가(지장보살)
이광선 영가(지장보살)	전명오 영가(아미타불)
고태선(아미타불)	김순분(아미타불)
전순환(지장보살)	장삼술(관세음보살)
엔디장(관세음보살)	연지 영가(석가모니불)
연성 영가(아미타불)	연화 영가(지장보살)
법문 영가(대일여래불)	모길 영가(관세음보살)

◎ 범종 불사 올리신 분

945 차효정 946 정주희 947 차수연 948 정덕인
949 차민경 950 최필현 951 남동운 952 김환호
953 송지은 954 송민경 955 송민수

◎ 법사비 보시하신 분

류윤만 관음회 이정성(세광하이테크)

기도 올리신 분

◎ 2015년 수능기도 100일 기도 올리신 분
허성빈 장단비 정승우 권준미 조만영

서현지 연정무 박은정 권도형 박범수
이화진 한우주 박민규 전수영 박진훈
김병훈 유수정 김상현 정혜진 김휘근
김미소 박준규 백인수

◎ 100일 기도 올리신 분

문수명 김수연

연가등 올리신 분

151 이상태영가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이운주 권정화 남세은

후원 물품 보내신 분

장어와 미꾸라지(남구 봉덕동 : 유종건)
-40인분 추어탕
김순란(과일 2만원) 신장희(참기름 매월 3만원)

왕생극락하옵소서

- ◆ 이종열 영가님의 2재 축원이 8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박민규 영가님의 6재가 8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권혁진 영가님의 막재가 8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김상호 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유청일 영가님의 3재, 4재, 5재가 8월 6일, 13일, 20일에 있었습니다.
- ◆ 김민정 복위 천도제가 8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백중기도(우란분절) 막재가 8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김해웅 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송극자 영가님의 초재와 박민규 영가님의 막재, 최영재 영가님의 기제사, 권영욱 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조을연 영가님의 초재가 8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권용애 복위 천도제가 8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김영선 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 27일에 있었습니다.

- 8월 16일에 만불점안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 9월 26일(금) : 정무대중사 입적 3주기 추모 법회-이동법회(석남사)
- 10월 11일(토) : 경로잔치
- 10월 17일(금) : 정무대중사 추모 음악회

해오름 소식

해오름요양원에서는 법왕사와 인연 있는 불자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드릴 예정입니다오니 주위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공연프로그램

모두가 함께하는 노래공연 프로그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모두 함께 봉사자님의 기타반주에 맞춰 신나게 열창하셨습니다.



놀이프로그램

아기자기한 게임들과 더불어 재미있는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어르신들을 항상 미소짓게 하는 놀이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경북예고 학생들의 작은 음악회

경북예고 학생들이 깜짝 방문으로 어르신들께 작은 음악회를 열어드렸습니다. 전자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성악 등 학생들이 가진 재능으로 훌륭한 무대가 펼쳐졌지요!

| 개인 정기봉사자 |

김명희(놀이치료), 최은선(미술치료)

| 단체 정기봉사자 |

참사랑문화봉사단, 써포터즈봉사단, 이·미용봉사단

| 학생 정기봉사자 |

장임영, 이가영, 김지현, 최준혁, 김명지, 김중오

제2해오름요양원·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철으신 어르신 25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립니다)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7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김명옥 1만원	도화순 5천원	김기수 2만원
김은주 1만원	박성림 1만원	장재혁 5천원
구정대 2만원	정순옥 5천원	한유자 5천원
양봉훈 1만원	김순태 1만원	김영랑 5천원
이정순 5천원	이재봉 5천원	김민주 1만원
박재후 1만원	전영희 5천원	김정규 5천원
신진우 1만원	허유미 5천원	정명선 2만원
엄세비 1만원	권기철 1만원	황치영 5천원
최영희 1만원	한희록 1만원	이은경 1만원
장효주 5천원	채수인 5천원	권영희 1만원
장성용 1만원	남기웅 1만원	신충호 5천원
박병준 1만원	정대영 1만원	이정희 5천원
석종순 1만원	황상옥 2만원	손말두 5천원
이전희 5천원	최윤희 5천원	최은순 1만원
정선옥 5천원	김우영 1만원	이정화 1만원
김경호 1만원	박치민 5천원	김경환 1만원
이현기 1만원	백옥수 5천원	권영희 1만원
김상철 5천원	진봉희 1만원	성승길 1만원
박귀분 1만원	김순연 5천원	박정목 1만원
권영희 2만원	김원형 3만원	황학영 1만원
이호동 5천원	김형택 2만원	박순영 5천원
김미정 1만원	정경석 2만원	임익균 1만원
박성숙 5천원	성외련 2만원	김영일 1만원
권봉자 3만원	정옥수 5천원	고연숙 1만원
정옥선 1만원	강선옥 1만원	정활화 3만원
홍유식 5천원	김진성 1만원	김진현 5천원
임상덕 1만원	윤광숙 5천원	심종순 5천원
박동규 5천원	김임태 5천원	권봉자 3만원
한규매 5천원	신진숙 1만원	정시영 1만원
오금옥 1만원	정연이 5천원	이상환 5천원
권보형 2만원	박대희 5천원	이인순 5천원
반룡사 1만원	홍새미 1만원	이남희 1만원
김봉숙 5천원	정경숙 1만원	조규인 1만원
안상준 2만원	오난옥 5천원	전행연 1만원
사공관 1만원	강소남 5천원	이병희 1만원
장호식 2만원	채옥연 5천원	김순란 3만원
박원태 1만5천원	신세호 1만원	배수현 2만원
김유진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승미 1만원
신돈식 1만원	유명옥 1만원	조영석 1만원
이용옥 1만원	여택동 5천원	김기덕 2만원

박학순 1만원	김외환 1만원	이종희 5천원
이임숙 2만원	김수라 1만원	박순남 5천원
안경순 1만원	조인성 5천원	최봉규 1만원
박용관 1만원	강심규 5천원	박경자 5천원
양나영 5천원	김영희 5천원	박태숙 5천원
박희조 5천원	신해경 5천원	정순옥 5천원
이은주 2만원	박재기 5천원	류윤만 1만원
김무용 5천원	문정애 2만원	김유리 1만원
안명희 1만원	신화식 1만원	류윤만 1만원
최경미 1만원	황미선 2만원	민주현 1만원
노귀자 5천원	권오국 1만원	현인숙 1만원
조창신 1만원	이정옥 1만원	윤정연 1만원
노수정 1만원	황준원 1만원	정무시 1만원
금강사 2만원	권계화 1만원	최창숙 5천원
권숙자 1만원	서규하 2만원	장우성 1만원
주성순 5천원	현영희 1만원	이승미 1만원
김정순 3만원	조정자 5천원	강영도 2만원
김대현 5천원	장성규 5천원	심규암 5천원
권명진 1만원	김미자 1만원	김정자 5천원
정운현 5천원	시명스님 5천원	우포정사 1만원
용마관음사 3만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5천원	이은희 5천원	이강복 1만원
---------	---------	---------

합계 1,840,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555,180원
- 의료비	58,700원
- 요양원 필요물품구입	54,900원
- 우편배송비	6,820원
- 전화내선공사비	250,000원
- 공중비	50,000원

7월 총 사용내역 1,043,60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과일주스 1box
유세모 어르신 보호자	: 포도 1box, 토마토 1box 바나나 5손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박카스 2box
박수연 어르신 보호자	: 빵 2봉지, 피자 1판, 콜라 1병
지영달 어르신 보호자	: 현금 4만원
한울식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90개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빵 2box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커피믹스 1box
이옥희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1box, 홍삼드링크 1box 바나나 1손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포도 1box
정금화 어르신 보호자	: 포도 1box
장말순 어르신 보호자	: 포도 2box
주정석 어르신 보호자	: 순대 2타래
김명희 자원봉사자	: 가지 1box
신장희	: 참기름 3만원상당
김순란	: 과일 2만원상당
권혁만	: 두유 1box
조만복	: 두유 1box
장어와미꾸라지	: 추어탕 40인분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상당
수성우체국	: 오미자김 1box
효산장례식장	: 옥수수 3자루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 CMS자동이체 후원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좌 5,000원부터)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원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실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추석차례 동참안내

추석은 음력 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음력 8월 15일 추석은 가위·한가위라고도 하며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들에 있어 봄에 심어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 수확할 계절이 되었고 1년 중 가장 큰 만월 날을 맞이하였으니 즐겁고 마음이 풍족하여 이 날을 기려 조상들에게도 차례를 올렸습니다.

법왕사에서는 매년 추석을 맞이하여 평생위패를 모신 불자들이나 불교식으로 차례를 모시고 싶은 불자들을 위해 여법하게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법도에 맞게 불교식을 가미하여 올리는 차례는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일체 고향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천도의 의식도 될 것이며 부처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불은을 조상들에게 전하는 기회가 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9월 8일(음력 8월 15일) 오전 10시
- 장 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동 참 : 단독차례 - 30만원 / 합동차례 - 영가 1위당 5만원
- 설 판 : 10만원(가족추원)
- 문 의 : 법왕사 종무소(053-766-3747)



법왕사 1인 1원불을 모십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인 비슬산 줄기에 자리잡은 법왕사는 비록 창건 역사는 짧지만 삼한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그 정통을 이어온 신라 불교의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의 성지인 영남, 그 가운데서도 팔공산과 쌍벽을 이루는 비슬산의 정기는 영남 불교의 거대한 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역사성에 걸맞게 법왕사는 1백분의 스님을 모시고 1백일 동안 끊임없이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를 28회나 봉행하여 법문과 기도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세계최대 불교복지도량 건립의 서원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하여 현재 5천평 대지 위에 연건평 1천평, 4층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4층에는 대적광전을, 3층에는 만불전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적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시는 공덕은 수미산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만불전에는 법왕사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일인 일원불을 모실 수 있도록 원불을 모시고 있으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달의 원불 모신 분

이상호(관세음보살)	이상호(관세음보살)
이계철 영가(지장보살)	권을필 영가(지장보살)
유청일 영가(지장보살)	권재우(관세음보살)
수공 영가(지장보살)	일경 영가(지장보살)
이광선 영가(지장보살)	전명오 영가(아미타불)
고태선(아미타불)	김손분(아미타불)
진순환(지장보살)	장삼술(관세음보살)
엔디장(관세음보살)	연지 영가(석가모니불)
연성 영가(아미타불)	연화 영가(지장보살)
법륜 영가(대일여래불)	모길 영가(관세음보살)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상들리에 · 불구 보시 모연문

법왕사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조성 불사회향을 앞두고 삼존불을 장엄할 천장의 상들리에와 촛대, 향로 등 불구를 보시받고 있습니다. 법왕사 대적광전은 천정 높이 9m에 이르는 장대한 법당으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등 삼존불을 봉안합니다. 도량과 법당, 불상의 위엄에 걸맞는 장엄물을 보시받고 있사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법당용 6봉 연등, 법당 연법등, 향로 촛대 세트

불사하신 분
최재훈 최윤재

해오름요양원이 확장되었어요!

〈1층 19명 추가 허가받음〉

“해오름요양원이 기존 25인 시설에서 44인 시설로 확장되었습니다. 한 달 여 공사 끝에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면서 힘드신 일은 없으신지요? 효를 실천하면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어린자식을 정성으로 돌봐줬듯 늙어가는 부모님을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돌봐드립니다. 남은 여생을 보낼 공간 무엇보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오름은 내 집 같은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가족이 되겠습니다.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행단체 모임안내

- | | | | |
|-------|----------------------------------|-------|------------------|
| 신 장 회 |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 인 등 회 |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
| 산신기도회 | 매월(음) 16일 오후 4시 | 지 장 회 |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
| 관 음 회 |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 합 창 단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 천일기도회 |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후 2시~4시까지 주지스님 집전 | | |